살았다	対性知			수도권매립지 종료
皆州也生色村	배포일자	2022년 4월 12일(화) 총 2매		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문화콘텐츠과 부서	담당자	• 콘텐츠정책팀 • 담당자		3 440−3991 3 440−3993
사진(이미지)	□ 없	음 🔳 있음	참고자료	■ 없음 □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-6개 유관기관, 콘텐츠기업 육성 위해 힘 모으기로

- 12일, '인천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육성위한 업무협약' 체결 -

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이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.

인천광역시는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, 인천관광공사,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, 인천지식재산센터,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, 인천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협약식에는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6개 협약기관장이 참석했다.

이날 협약은 향후 3년 동안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사업의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,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. 앞으로 인천시는 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총괄하고, 인천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은 콘텐츠투자, 지역콘텐츠 관광연계, 지적재산권 역량 강화, 기업홍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협력한다.

이번 협약을 위해 각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실무자 간 간담회를 진행해왔다. 협약식 이후에도 정기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, 인력과 공간의 공유, 지역 내 네트워크구축 등의 안건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"인천 콘텐츠산업 분야가 문화, 관광, 교육, 경제 등 도시산업 전반의 연계와 융합으로 이어져, 주요 사업 간의 시 너지를 내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국가 공모사업인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, 인천콘텐츠 코리아랩, 인천 VR·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과 함께, 올해 총 10개 사업에 104억 원(전년대비 25% 증가) 규모의 콘텐츠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
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4개의 신규 사업, ▲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지원 ▲인천형 콘텐츠유망기업 발굴·집중육성 ▲청년콘텐츠우수인재 양성 ▲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확산 사업에약 24억 원을 투입해 콘텐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 인터넷방송'(http://tv.incheon.go.kr/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